

## 1. 서론

### 한국 농인의 수어 코드 스위칭 유형과 원인 분석\*

이 현 화\*\*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석사

윤 병 천\*\*\*

나사렛대학교 수화통역학과 교수

#### 《요약》

이 연구는 한국 농인과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한 청인이 대화할 때 나타나는 한국수어-유사수어체계의 코드 스위칭 유형과 코드 스위칭이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한 것이다. 그림 「개구리 이야기」를 4명의 농인에게 제시하였고 이들은 각각 한 명의 농인과 청인에게 그림이야기를 설명하고 담화를 나누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인이 청인과 대화할 때 나타나는 코드 스위칭의 유형은 한국어 품사 추가, 한국어 구로 전환, 지문자로 전환 총 3가지로 나타났다. 한국어 품사가 추가된 경우는 24%, 한국어 구로 전환 22%, 지문자로 전환 54%로 지문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한국어 품사는 한국어의 동사 '하다'와 '되다', 조사, 부사가 추가되는 형태가 나타났다. 둘째, 농인에게 코드 스위칭이 발생하는 원인은 이해 여부, 정확한 메시지 전달, 확인, 교육, 대화상대자 5가지로 정리되었다.

주제어 : 농인, 한국수어, 유사수어체계, 코드 스위칭

\* 이 연구는 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제1저자(lhh1127@hanmail.net)  
\*\*\* 교신저자(ybch5778@kornu.ac.kr)

### 1.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은 자연스럽게 한국수어와 한국어를 병용하는 이중 언어 환경에 놓이게 되며 집, 학교, 직장 등 장소에 따라, 혹은 대화참여자에 따라 언어 코드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처럼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발화 행위를 할 때 발화 전략의 하나로 상황에 따라 언어를 바꾸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말을 바꾸어 쓰기도 한다(김영, 2010). 이와 같은 현상을 코드 스위칭이라 하며 Bentahila & Davies(1983)는 코드 스위칭(code-switching)을 “하나의 대화나 발화에 서 두 언어의 사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정소현, 2013에서 재인용).

농인의 코드 스위칭 현상은 농인이 있는 곳이라면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수어 연구 분야와 교육에서의 코드 스위칭은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한국수어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연구 자료는 크게 문헌과 농인의 수어를 촬영한 영상으로 나눌 수 있다. 문헌 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농인의 수어를 촬영하여 연구의 자료로 삼은 경우라도 대부분 청인 연구자들이 농인 참여자를 직접 촬영하거나 같은 공간에 있었고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현장에 청인 연구자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농인에게 코드 스위칭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한 것이다. 이러한 자료는 한국수어 연구의 자료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수어 연구 분야와 마찬가지로 한국수어 교육 현장에서도 농인의 코드 스위칭은 쉽게 관찰된다. 한국수어를 가르치기 위해 교수자가 농인이 된다 하여도 교육의 대상이 청인이었으므로 농인 교수자에게는 이미 코드 스위칭이 나타나 많은 부분 유사수어체계를 가르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농인을 만나며 수어를 접하게 된 청인들은 자신이 배운 것이 유사수어체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유사수어체계를 사용하거나 또 다른 청인에게 이를 교육했고 이러한 과정이 한국수어의 왜곡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농인의 한국수어-유사수어체계 코드 스위칭은 넓게 퍼져있고 농인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농인의 코드 스위칭을 인지하고 있다. 코드 스위칭은 전략적이며 무의식적인 하나의 언어현상으로, 한국수어 연구, 교육 등 한국수어를 둘러싸고 있는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코드 스위칭을 밝혀내는 연구가 필요하다.

수어의 코드 스위칭을 분석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코드 스위칭은 농인에게 있

1) 한글식 수어를 비롯하여 자국의 음성언어 체계를 바탕으로 한 모든 체계를 의미한다. 이 체계는 수어의 보편적이며 대표적 특징인 동사의 일치와 분류사 구문 구성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문법에 따라 수어 표현을 한 체계를 유사수어체계로 정의하였다.

어 무의식적,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인 듯한데, 이 현상은 Lucas와 Valli(1989)가 미국수화에 대해 지적한 것과 같이 상대의 수화능력뿐만 아니라 듣기 정도에도 민감하다. 예컨대, 농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를 농인으로 생각하고 있던가, 상대의 읽기 정도를 분명하게 모르고 이야기를 시작하였을 때 상대의 수화능력이 뛰어나므로 그는 수화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러나 증도에 상대가 청인인 것을 알게 되면 순간적으로 코드를 바꾸어 구어의 규칙을 따르는 손짓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Lucas 등(1999)은 미국수화에서 코드 스위칭 현상이 미국수화(ASL)와 SEE 1, SEE 2와 같이 영어를 손짓으로 코드화한 조작된 체계(invented system) 중 하나 사이에서 생긴다고 하였으며(김칠관, 윤병천, 2011에서 재인용), Lucas, Valli 그리고 Mulrooney(2005)는 하나의 사인(one sign) 또는 문장의 한 부분 또는 한 문장 전체, 하나의 문단이 전환될 수 있다고 하였다.

사회언어학적 측면에서 수어 교육을 비판한 大杉·市田(1998)은 대부분의 경우 수어 강습회에서 학습자는 주어진 일본어 예문을 말하면서 수어 단어를 나열하는 식으로 지도를 받고, 이것은 수지일본어(手指日本語)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농인도 수어 학습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은 수지일본어를 쓰지 일본수어는 그다지 쓰지 않으며 청인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수지일본어로 한다는 것은 농인에게 있어 사회적인 규칙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농인은 장면이나 상대에 따라 코드 또는 스타일을 스위치(시프트)하는 일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것은 농인끼리 수어로 이야기 하는 장면에 청인이 끼게 되면 일본수어에서 수지일본어로 바꾸는 것 이라고 하였다. 大杉·市田의 연구를 통해 일본의 수어 교육 현장에서 농인의 코드 스위칭이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수어 교육 현장에서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다.

코드 스위칭의 연구에서는 코드 스위칭이 언제, 그리고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화용론적 기능에 주목하는 사회언어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코드 스위칭의 원인에 대한 견해는 다양한데 아즈마(東, 2000)는 코드 스위칭을 다음 4가지로 크게 분류한다. 첫째 장면, 상대, 상황, 화제 등의 변화에 따른 코드 스위칭. 둘째, 구성원으로서의 자격(membership)을 확립하기 위한 코드 스위칭. 셋째, 화자와 청자 사이에 생기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교섭에서의 코드 스위칭. 넷째, 두 언어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모를 때의 코드 스위칭. 아즈마(東, 2000)의 분류 중에 처음 두 가지는 수어 사용자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코드 스위칭의 원인과 관련된 범주로 볼 수 있다.

Hauser(2000)는 10살 농아동의 ASL과 Cued English의 코드 스위칭을 연구하여 코드 스위칭의 유형을 8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어떤 언어의 통사론에서 문장 내 통사적 형태가 다른 언어를 사용할 때 적극적으로 충돌되는 것이 나타나는 유형.

둘째, 참여자가 자신의 우세언어(matrix language)의 어휘를 잊었을 때 다른 언어의 어휘로 전환한 후 우세언어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유형.

셋째, 참여자가 장소의 이름과 적절한 명칭과 같은 명확한 어휘를 나타내기 위해 어떤 언어로부터 다른 언어로 전환하는 유형.

넷째, 참여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어휘가 없음을 느낄 때, 다른 언어로 전환했고 본인의 나머지 발화에서도 계속해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유형.

다섯째, 참여자가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다른 언어로 더 잘 표현할 수 있다고 느낄 때 다른 언어로 전환하는 유형.

여섯째, 참여자가 어떤 언어로 명확히 말하는 것에 확신이 들지 않을 때 코드를 전환하는 유형.

일곱째, 코드 스위칭이 생각을 하는 동안의 간격을 메꾸기 위해 사용되는 유형.

여덟째, 코드 스위칭이 주제와 관련이 없는 의견을 말할 때 사용되는 유형.

적은 양의 연구자료를 분석한 Peter C. Hauser(2000)의 연구는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8가지의 분류는 유형이라기보다 원인에 가깝게 보여진다. 또한 Hauser가 제시한 코드 스위칭의 8가지 유형 중에 ‘참여자가 자신의 우세언어(matrix language)의 어휘를 잊었을 때 다른 언어의 어휘로 전환한 후 우세언어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유형’과 ‘참여자가 어떤 언어로 명확히 말하는 것에 확신이 들지 않을 때 코드를 전환하는 유형’은 촬영한 영상 자료를 분석하여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Hauser의 연구는 수어의 코드 스위칭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내용을 상세하게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농인의 수어 코드 스위칭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코드 스위칭의 유형과 원인이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았으며 국내의 한국수어-유사수어체계의 코드 스위칭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인의 한국수어-유사수어체계의 코드 스위칭 연구가 수행된다면 한국수어 연구, 한국수어 교육에서 나타날 수 있는 코드 스위칭을 인지함으로써 이를 통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농인이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한 청인과 대화할 때 나타나는 한국수어-유사수어체계의 코드 스위칭 유형과 코드 스위칭이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 1) 농인이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한 청인과 대화할 때 나타나는 한국수어-유사수어체계의 코드 스위칭 유형은 무엇인가?
- 2) 농인이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한 청인과 대화할 때 코드 스위칭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농인과 청인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한국수어-유사수어체계 코드 스위칭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모든 과정을 촬영해야 하므로 이에 동의한 농인 8명, 청인 4명 총 12명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 5명, 여자 7명이며, 연령 분포는 20대 10명, 30대 1명, 40대 1명이다. 거주지 분포는 서울시 2명, 경기도·인천광역시 4명, 충청남도 3명, 충청북도 1명, 전라남도 1명, 경상남도 1명이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적 사항

농청 여부	기호	성별	연령대	학력	거주지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자격증
1	농인 S1	남	20대	대학 재학 중	전라남도	-
2	농인 S2	여	20대	대졸	충청북도	-
3	농인 S3	남	40대	고졸	충청남도	-
4	농인 S4	여	30대	고졸	충청남도	-
5	농인 D1	여	20대	대학 재학 중	서울	-
6	농인 D2	여	20대	대졸	서울	-
7	농인 D3	남	20대	고졸	경기도	-
8	농인 D4	여	20대	대학원 졸업	경기도	-
9	청인 H1	남	20대	대졸	충청남도	0
10	청인 H2	여	20대	대학 재학 중	경기도	0
11	청인 H3	여	20대	대학 재학 중	인천광역시	0
12	청인 H4	남	20대	대학 재학 중	경상남도	0

### 2. 연구도구 및 절차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한 동영상 녹화를 하기에 앞서 모든 연구참여자들에게 촬영동의서의 내용을 수어 또는 음성언어로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았다. 연구 자료 수집을 위해 「개구리 이야기("Frog, Where Are You? (Mayer,1969)")」 라는 총 24장으로 이루어진 그림이야기를 제시하였다. 그림에는 문자언어가 삽입되어 있지 않아 문자

언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영향을 배제하였다. 연구자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역할을 맡은 농인들에게 각각 파워포인트로 그림이야기를 제시하였고, 이때 농인의 상대 대화자(대화참여자)에게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

농인(S1)은 농인 대화참여자(D1)에게 그림이야기의 내용을 1번 설명하고 설명을 마친 후에는 자유롭게 담화를 나누었다. 농인 대화참여자(D1)가 나가고 청인 대화참여자(H1)가 들어오면 농인(S1)은 동일한 방법으로 청인 대화참여자(H1)에게 그림 이야기를 1번 설명하고 설명을 마친 후 자유롭게 대화하였다. 그림이야기를 설명하고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기까지의 시간을 20분으로 정하여 촬영하였다. 이렇게 농인이 각각 한명의 농인과 청인에게 그림이야기를 설명하고 담화를 나누는 것을 하나의 셋트로 하여 4명의 농인이 하나의 셋트씩 총 4개의 셋트를 진행하였다. 실험의 모든 과정은 동일하나, S1과 S2에게는 실험 시작 전에 상대가 농인인지 청인인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었고 S3와 S4에게는 농·청 여부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표 2> 연구참여자 배치표

구분	농인 (이야기 설명)	대화참여자	비고
Set 1	S1	D1 (농인)	대화참여자의 농·청여부 사전에 알려줌
		H1 (청인)	
Set 2	S2	D2 (농인)	
		H2 (청인)	
Set 3	S3	D3 (농인)	대화참여자의 농·청여부 사전에 알려주지 않음
		H3 (청인)	
Set 4	S4	D4 (농인)	
		H4 (청인)	

연구자는 촬영 환경을 설치한 후 촬영 진행 시에는 해당 장소에서 벗어나 있었으며 총 160분의 영상을 확보하였다.

### 3. 자료 분석 방법

이 연구는 코드 스위칭의 유형과 원인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전사 프로그램인 'ELAN 4.6.2'로 부분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ELAN 4.6.2'의 5개 층(tier)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층에는 한국어 번역문, 두 번째 층은 우세손으로 한 수어, 세

번째 층은 비우세손 수어, 네 번째 층은 'code-blends'를 알아보기 위한 입모양, 다섯 번째 층에는 분석을 위한 연구자의 의견을 코드 스위칭의 유형 및 원인으로 나누어 기재하였다.

S1, S2, S3, S4은 이야기를 설명하는 역할을 맡은 농인들로 이들에게 나타난 코드 스위칭을 살펴보았다. 위의 방법으로 농인-농인, 농인-청인의 대화를 진사한 후 동일한 농인 화자(그림이야기 설명을 맡은 농인)가 발화한 문장들 중에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대화참여자(농인, 청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문장들을 추출하였고, 이를 비교분석 하여 코드 스위칭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 III.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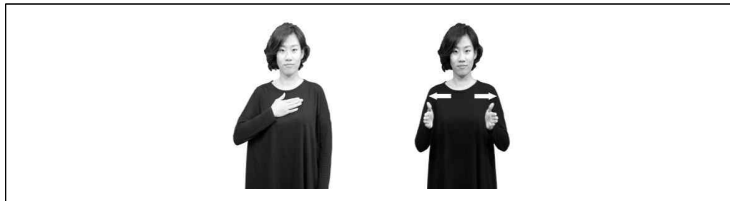
#### 1. 한국 농인의 수어 코드 스위칭 유형

한국수어-유사수어체계 코드 스위칭의 유형은 첫째, 한국어 품사 추가, 둘째, 한국어 구로 전환, 셋째, 지문자로 전환되는 경우로 나타났다. 한국어 품사가 추가된 경우는 한국어의 동사 '하다'와 '되다', 조사, 부사가 추가된 경우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한국어 품사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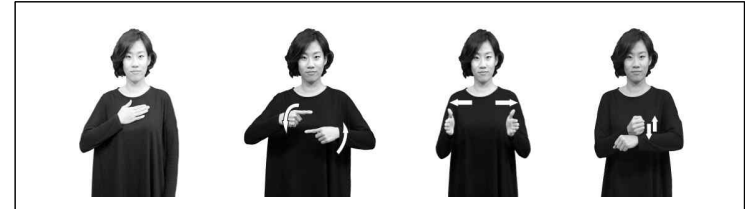
###### (1) 수화 동사와 한국어 '하다/되다'

S2의 자료에서 한국수어가 한국어의 동작성 명사와 '하다'가 함께 쓰이는 용법으로 코드 스위칭 된 예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하다' 추가1

① S2-D2: [나+**시작**]<sup>2)</sup>  
(내가 시작하겠다.)<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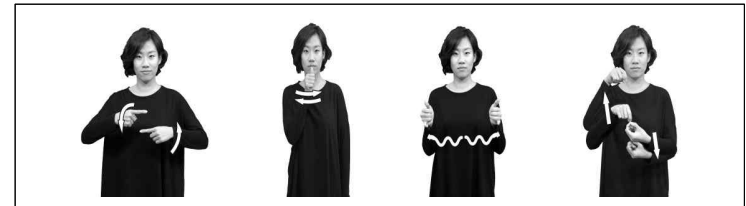


<그림 2> '하다' 추가2

S2-H2: [나+수어+**시작+하다**]  
(내가 수어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그림 이야기 설명에 앞서 S2는 이제 설명을 시작하겠다고 상대방에게 알려주려고 하였다. ①에서 굵게 표시된 부분처럼 S2는 같은 농인인 D2에게는 [나+시작]이라고 하였지만 청인인 H2에게는 [나+수어+시작+하다]로 표현하였다.

엄미숙(1996)에 의하면 한국수어에는 '이다'라는 지정사가 없고 활용도 없으며 특히 체언에 접사 '하다'가 붙은 동사도 원래는 체언수어로 나타난다. 한국수어의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S2는 체언수어에 한국어 '하다'를 결합하여 한국어 문법에 따른 유사수어체계로 코드 스위칭 하였다.



<그림 3> '되다' 추가1

② S4-D4: [수어+동역+사람+오래]  
(수화통역사로 일한지 오래되었다.)

2) 수어를 glosses로 전사하여 표기하였다.  
3) 수어 전사와 별개로 한국어 번역문을 ()안에 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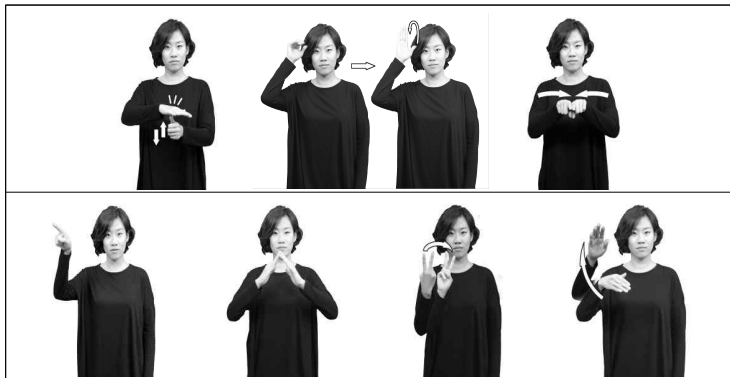
<그림 4> '되다' 추가2

S4-H4: [수어+오래+되다]  
(수어를 한지 오래되었다.)

한국어 '되다'의 경우 '되다' 동사가 '하다' 동사의 타동사문으로 사용할 수 없는 형태는, 수동과는 상관없이 단순히 어형성의 역할을 하는 어형성접사용법으로(이성규, 2003: 유소영, 2012에서 재인용), 위의 예는 한국수어 어휘와 한국어 '되다'가 결합된 형태이다. [오래]의 의미를 가진 한국수어는 서술어로 사용되지만 어형성접사용법으로 한국어의 '되다' 동사와 결합하여 코드 스위칭이 된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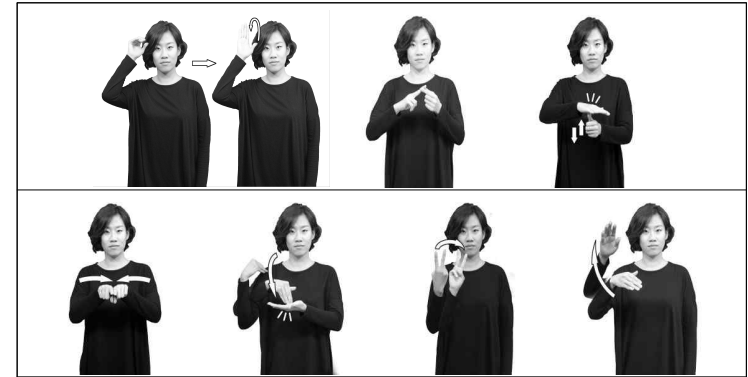
(2) 한국어 조사

한국어의 조사로는 '~이(가)', '~을(를)', '~에게' 등이 있는데, 수어는 일처동사의 활용과 수어 공간, 어순의 활용 등을 통해 조사의 의미를 실현하게 된다.



<그림 5> 조사 추가1

③ S1-D1: [꼬마+개+함께+저기+집+돌다+가다]  
(꼬마와 개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그림 6> 조사 추가2

S1-H1: R-[개+~와+꼬마+함께+원래의 상태+돌다+가다]  
(개와 꼬마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한국어는 대상의 나열을 '~와', '~과'와 같은 부사격 조사나 '~고', '~으며'와 같은 연결어미로 실현한다. 하지만 한국수어는 이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엄미숙(1996)에 의하면 한국수어에는 연결어미가 없고, 대상을 나타내는 수어의 나열만으로 문맥의 의미를 나타내거나 수어 [그리고]를 통해 나열 관계를 나타내게 된다.

③의 예는 S1의 자료에서 나온 문장으로 S1은 그림 이야기의 주인공이 개구리를 찾고 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설명했다. 여기서 농인인 D1에게 설명할 때는 수어 '꼬마(주인공)'와 '개구리'를 순차적으로 나열함으로써 의미를 전달하지만, 청인인 H1에게는 한국어 조사인 '~와'에 대응하는 수어를 사용하여 한국어의 조사를 그대로 나타낸 유사수어체계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한국어 부사

한국수어의 부사는 부사어휘, 반복의 횟수, 강약의 정도, 발화의 시간 길이, 비수지부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현된다. 유사수어체계의 경우 주로 부사어휘를 사용하여 서술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그림 7> 개구리이야기1



<그림 8> 부사 추가1

④ S2-D2: [나무+올라서다+개구리+찾다+ 밑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다]  
 (꼬마가 나무 위에 올라서서 개구리를 찾고 있는데 발 밑에서 사슴이 올라와 그것을 타게 되었다.)



<그림 9> 부사 추가2

S2-H2: 우세손-[나뭇가지가 뻗어있다+거기+올라서다+그러나+ 밑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다]

비우세손- [나무]  
 (꼬마가 뻗어있는 나뭇가지 위에 올라섰는데, 발 밑으로 사슴이 올라 와 그것을 타게 되었다.)  
 H2-S2: (웃음)



<그림 10> 부사 추가3

S2-H2: 우세손-[나뭇가지가 뻗어있다+걷다+서있는 곳 밑에 무언가가 올라오다]  
 비우세손- [나무]  
 (꼬마가 뻗어있는 나뭇가지 위에 올라서있는데 발 밑에서 사슴이 올라와 그것을 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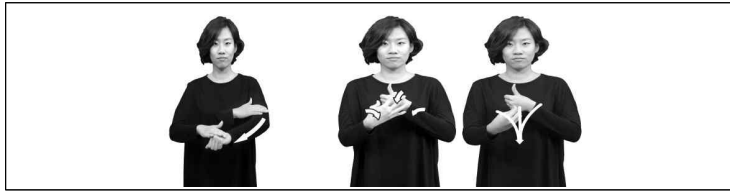
위의 내용은 주인공이 개구리를 찾기 위해 나뭇가지 위에 올라타는데, 그것이 사슴 뿔이었고 사슴이 고개를 들자 꼬마가 사슴 머리 위에 타게 된다는 부분을 S2가 설명한 것이다. 내용의 특성상 분류사 구문이 많이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S2는 동일한 내용을 H2에게 설명할 때만 [그러나]라는 부사어휘를 사용하여 전달하였다. 엄미숙(1996)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전달하는 선행문과 후행문의 의미 전달은 순접이든 역접이든 접속하는 기호 없이도 그 의미관계가 문장에 내포되어 있다고 하였다.

수어의 [그러나]는 앞뒤의 내용이 대립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그림의 내용은 대립되는 내용이 아님에도 S2는 H2에게 [그러나]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S2의 수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꼬마가 뻗어있는 나뭇가지 위에 올라서있는데 발 밑에서 사슴이 올라와 그것을 타게 되었다.'가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한국어 '-는데'는 동사나 '있다', '없다'의 어간 또는 선어말 어미 '-으시', '-었-', '-겠-',의 뒤에 붙어 뒤 절에서 일어나는 행동의 원인이나 이유 등을 제시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S2는 해당 부분의 내용이 대립이 아님에도 수어 [그러나]를 위의 '-는데'의 의미에 대응되도록 사용하였다. 또한 분류사를 사용하여 공간적으로 표현하던 수어의 [그러나]를 사용함

로써 수어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끊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S2의 설명을 보고 있던 H2가 내용이 이해되었다는 듯이 웃어 보이자, S2는 다시 코드를 전환하여 동일한 내용을 수어로 반복하여 보여주었다.

### 2) 한국어 구로 전환

한국수어·유사수어체계의 코드 스위칭에서 한국어 품사가 추가되는 것만큼 한국 수어 문장의 일부분이 한국어 구로 교체 되는 경우도 자주 나타난다. 여러 상황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구 단위의 코드 스위칭은 다음과 같다.



<그림 11> 구 전환1

⑤ S2-D2: [잘하다+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다]  
(내가 한 말을 잘 이해했군요.)



<그림 12> 구 전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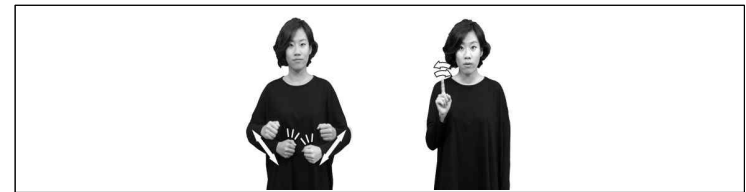
S2-H2: [질문을 받다+없다+**잘하다+읽다**]  
(나한테 묻지 않는 것을 보니 내가 한 말을 잘 이해했군요.)

S2는 그림이야기의 내용을 설명한 후에 상대방과 담화를 나누며 자신이 설명한 그림 이야기를 상대방이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였다. 확인을 한 후 농인 대화참여자 와 청인 대화참여자에게 각각 '내가 한 말을 잘 이해했군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말을 했는데,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⑤의 문장을 보면 S2가 청인인 H2에게 [잘하다+읽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수어 [읽다]는 '(사람이 글을) 해당 언어의 의미 체계를 통해 그 내용을 알아 나간다.'로 글을 읽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국어의 '읽다'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사람이 무엇을)은유적이거나 상징적인 깊은 의미를 찾아내고 이해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S2는 H2에게 '나의 수어를 잘 이해하였다'는 말을 하기 위해 같은 [읽다]의 형태지만 한국어의 '읽다'의 의미를 가진 유사수어체계의 코드 스위칭하여 '잘 읽는다'로 전달하려고 하였다. 이는 한국수어-유사수어체계의 코드 스위칭이 어순 또는 다른 형태의 단어로의 교체뿐만 아니라, 동형이지만 의미가 달라짐으로 인해 코드 스위칭 된 사례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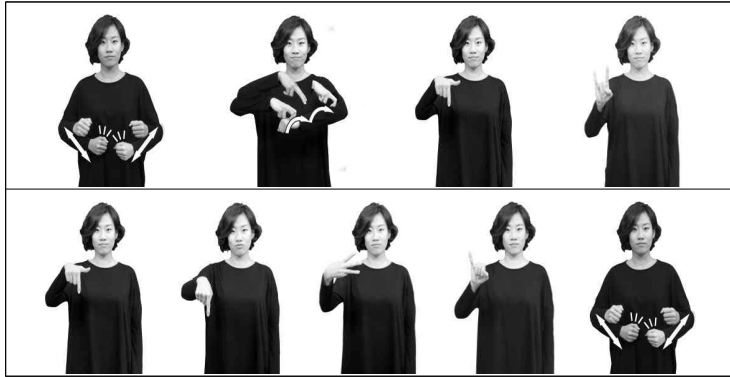
### 3) 지문자로 전환

한국수어·유사수어체계의 코드 스위칭 연구에서 지문자로 전환되는 형태가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Battison(1978)은 어떤 어휘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문자가 어휘화 되었다고 하였고, Kuntze(2000)는 지문자는 ASL과 영어 문어(written English) 사이의 코드 스위칭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Quinto-Pozos, 2007). 한국수어에서도 오랜 시간에 걸쳐 수어 어휘로 굳어진 지문자들이 있다. 하지만 통용되는 수어가 있음에도 지문자로 다시 표현한 것들은 코드 스위칭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3>지문자 전환1

⑥ H2-S2: [개구리+무엇?]  
(이 수어가 무엇인가요?)



<그림 14>지문자 전환2

S2-H2: [개구리+뛰다(jump)+**개구리**+개구리]

(폴짝폴짝 뛰는 개구리예요. '개구리')

H2는 [개구리] 수어가 무엇인지 물었고, 이를 S2에게 물어보았다. S2는 분류사로 개구리가 폴짝폴짝 뛰는 것을 설명하였지만 H2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자 지문자로 '개구리'라고 알려주었다.

## 2. 한국 농인의 수어 코드 스위칭 원인

이 연구에서는 연구 자료에서 나타난 한국수어-유사수어체계의 코드 스위칭 원인을 이해 여부, 정확한 메시지 전달, 확인, 교육, 대화 상대자 5가지로 정리하였다.

### 1) 이해 여부

화자가 한 이야기를 청자가 이해하지 못했을 때 화자 본인이 사용하던 언어를 전략적으로 바꾸어 상대를 이해시키려고 하며 코드 스위칭이 나타났다.

### 2) 정확한 메시지 전달

S1, S2, S3, S4 의 제1언어는 한국수어이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 한국수어·유사수어체계의 코드 스위칭을 사용하였다. 화자는 정확한 메시지 전달을 위해 동일한

메시지이지만 언어를 달리하여 반복, 표현하는 번역 구문을 활용하거나 특정 명칭을 지문자로 표현하였다. 이는 청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화자 자신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기도 하다.

### 3) 확인

연구에 참여한 청인들은 모두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소지한 상태였지만 취득한지 채 2년이 되지 않았고, 본인의 한국수어 구사 능력을 5점 척도에서 1점 또는 2점이라 응답하였다. 한국수어가 능숙한 농인 화자와 그렇지 못한 청인 화자 사이의 대화에서 의도한 바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 여러 번 발생하였다. 수어가 아직 능숙하지 않은 청인 화자들이 대화 도중에 잘못된 수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농인 화자가 이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 청인 화자의 발화를 그대로 되풀이 확인한 후 수어를 바로잡아주었다.

### 4) 교육

S3-H3사이의 대화에서 교육을 하고자 코드 스위칭이 발생한 경우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현재 S3는 40대 남성이며, 농 배우자와 농 자녀 3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S3는 자신의 수어 구사 능력을 5점 척도에서 4점(뛰어남)으로 응답하였다. H3는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나, 자신의 수어 구사 능력을 2점(못함)으로 응답하였다.

S3는 촬영이 시작되기 전에 자신의 대화 상대자의 농·청 여부를 알지 못했다. 실험이 시작되고 일방적으로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는 그림이야기 설명이 끝나고, 담화가 시작되면서 대화를 적극적으로 주고 받게 되는데 S3는 그림이야기 설명이 끝난지 3분 40초 만에 H3에게 청인인지를 질문하였다. 그 후에 S3는 말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H3에게 여러 번 유사수어체계로 코드 스위칭을 하며 수어를 가르쳐 주었다.

### 5) 대화 상대자

김영(2010)에 의하면 담화 가운데서 청자에 따라서 해당 언어를 발화할 때 일어나는 코드변환은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다. 대화 진행 중에 사용언어를 모르는 청자가 개입할 경우 화자는 자신의 사용 언어를 청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꾸면서 계속 대화를 진행시켜 나간다.

S1과 S2는 촬영 전에 상대의 농·청 여부를 알고 촬영에 임했다. S3, S4는 상대가 농인인지 청인인지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이 촬영에 들어갔다. 수집된 연구 자료 중에 S1, S2의 코드 스위칭이 70%, S3, S4의 코드 스위칭이 30%로 상대가 청인



이라는 것을 알고 촬영에 임한 S1, S2의 자료에서 코드 스위칭이 2배 이상 발견되었다. 대화 상대자가 청인임을 알고 촬영을 시작한 S1, S2는 실험 초반부인 그림이야기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코드 스위칭을 하고 있으며, S3, S4는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림이야기를 설명할 때는 상대가 청인인지를 모르다가 담화가 시작되며 청인이라는 것을 알고 코드 스위칭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통해 청인이 코드 스위칭의 유발 요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S3와 S4가 대화참여자가 농인일 때는 농인인지, 청인인지를 묻지 않았는데 상대가 청인일 때는 농·청 여부를 질문하였다는 것이다.

#### IV. 논 의

이 연구에서 한국수어-유사수어체계의 코드 스위칭 유형으로 한국어 품사 추가, 한국어 구로 전환, 지문자로 전환 3가지 유형이 나타났다. 연구 자료에서 명사와 대명사가 지문자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단어 단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체 비율 중 단어 단위가 78%, 구 단위는 22%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Cook(1991)이 하나의 단어 단위는 84%, 구는 10%, 절은 6%로 코드 스위칭이 나타난다(Skiba, 1997에서 재인용)고 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Lucas, Valli 그리고 Mulrooney(2005)의 연구와 중국 조선족의 조선어·중국어 코드 변환을 연구한 김영(2010)의 연구처럼 어휘단위, 구나 절 단위의 유형이 확인되었고, 유소영(2012) 등 한국어·음성언어 코드 스위칭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동사 ‘하다’와 ‘되다’의 활용이 동일하게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음성언어 코드 스위칭의 유형과 수어의 코드 스위칭 유형이 일부 같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읽다]가 수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니라 한국어 ‘읽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한국수어-유사수어체계의 코드 스위칭이 어순 또는 다른 형태의 단어로의 교체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동형이지만 수어의 의미가 아닌 수어에 붙여진 한국어 이름(label)의 의미를 나타냄으로써 코드 스위칭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수어는 비수지신호(non manual signals)가 중요한 문법적 역할을 하는 언어로, 비수지신호에 대한 정밀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음성언어와는 다른 코드 스위칭 유형이 발견될 것이다.

한국수어-유사수어체계의 코드 스위칭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이해 여부, 정확한 메시지 전달, 확인, 교육, 대화 상대자 5가지가 확인되었는데, Hauser(2000)의 연구에서 나타난 ‘정확한 메시지 전달’, 김정자(2003)에서 나타난 ‘확인’ 등이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으며, 大杉·市田(1998)가 지적인 대로 상대가 청인이라는 것을 알고 촬영에 임한 S1, S2의 자료에서 코드 스위칭이 2배 이상 발견되어 대화 상대자가 농인인지 청인인지에 따라 농인의 코드 스위칭이 유발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수어 연구, 수어 교육 등 수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코드 스위칭의 원인 중에 ‘교육’은 S3-H3의 자료에서만 확인 되었는데, H3가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은 자료 유창한 수어 구사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두 대화자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교육’의 목적으로 코드 스위칭이 나타나는 데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Hauser(2000)의 연구에서 발견된 ‘코드 스위칭은 생각을 하는 동안의 간격을 메꾸기 위해 사용’, ‘코드 스위칭은 주제와 관련이 없는 의견을 말할 때 사용’의 원인은 본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이 연구에서는 농인이 농인과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한 청인에게 각각 같은 그림이야기를 설명한 후 담화를 나누는 상황을 설정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한국수어-유사수어체계 코드 스위칭 현상을 분석하여 유형과 원인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연구 문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수어-유사수어체계의 코드 스위칭 유형은 한국어 품사 추가, 한국어 구로 전환, 지문자로 전환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품사가 추가된 경우는 24%, 한국어 구로 전환 22%, 지문자로 전환 54%로 지문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어 품사가 추가된 경우는 한국어의 동사 ‘하다’와 ‘되다’, 조사, 부사로 정리되었다.

유사수어체계는 한국수어와 동일한 시각-운동체계이며, 동형의 수어 어휘를 사용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봤을 때 코드 스위칭 현상을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단순히 어순 또는 어휘의 교체뿐만 아니라 동형의 수어 어휘가 수어의 의미가 아닌 수어에 붙여진 한국어 이름(label)의 의미를 나타냄으로써 코드 스위칭 되는 것이 확인되어 의미적으로도 구분이 가능함이 나타났다.

한국수어-유사수어체계의 코드 스위칭이 발생하는 원인은 이해 여부, 정확한 메시지 전달, 확인, 교육, 대화 상대자 5가지로 나타났다. 화자가 청자에게 그림이야기

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 후에 자유롭게 담화를 나누는 연구 설계의 특성상 연구 안에서 나타난 코드 스위칭의 원인 중에 이해와 정확한 메시지 전달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 2. 제언

이 연구는 농인과 청인 사이에서 나타난 한국수어-유사수어체계의 코드 스위칭 유형과 원인을 정리하고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지 못했고, 제한적인 연구 설계로 인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으로 보다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첫째, 코드 스위칭의 다양한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농인과 농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한국수어-유사수어체계, 한국수어-외국수어의 코드 스위칭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지칭적, 전환적 등 코드 스위칭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한 대화 장면에서 3인 이상의 대화자가 참여한 담화 자료를 바탕으로 한 코드 스위칭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김영(2010). 중국 조선족의 코드변환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일반 대학원.
- 김정자(2003). **제일한국인 1세의 한국어, 일본어 혼용 실태에 대한 연구**. 테하사
- 김철관, 윤병천(2011). **용용언어학개론**. 경기 과주: 양서원.
- 박정현(2012). 청각장애인 청년이 경험하는 비장애인과의 대인관계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손희연(2006). 한국어 수업 상황의 코드 스위칭. **이중언어학**. 제 31호, 131
- 엄미숙(1996). 한국수어의 통사론적 특징 분석.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유소영(2012). 일본어 「する」 동사와 한국어 「하다/되다」 동사의 대응관계.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정소현(2013). 한국어·영어 code-switching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大杉 豊·市田泰弘(1998). 手話講習會で何を教えるか-社會言語學的考察-, **手話學研究**, 第14卷 第2号, 60-66.
- 東 照二(2000). **バイリンガリズム**, 東京: 講談社.
- Clayton Valli, Ceil Lucas, Kristin J. Mulrooney.(2005). *LinguisticsofAmericanSignLanguage*.GallaudetUniversityPress.

David Quinto-Pozos(2007). *SignLanguageinContact*.GallaudetUniversityPress.

Emmorey, K., Borinstein, H.B., & Thompson, R.(2005).

*BimodalBilingualism:Code-blendingbetweenSpokenEnglishandAmericanSignLanguage*.InJamesCohen,KaraT.McAlistar,KellieRolstad,andJeffMacSwan(Ed.),*ISB4:Proceedingsofthe4thInternationalSymposiumonBilingualism*,(pp.663-673).Somerville,MA:CascadillaPress.

John Robert Hanson(2012). The pragmatic role of code-switching and simultaneous production during play contexts of bimodal bilingual hearing children of deaf parents. Masters of Arts.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17.

Mayer(1969). "Frog, Where Are You?"

Richard Skiba(1997). Code Switching as a Countenance of Language Interference. *TheInternetTESLJournal*,Vol.III,No.10.

Peter C. Hauser(2000).

*AnAnalysisofCodeswitching,bilingualism&identityindeafcommunities*.GallaudetUniversityPress

## Analysis of Code-switching types and its cause For the Deaf in Korea

**Lee, Hyun Hwa**

Graduate School, Korea Nazarene University

**Yoon, Byeong Cheon**

Korea Nazarene University

### <Abstract>

The study is on the analysis of code-switching types of Korean Sign Language-Signed Korean that occurs when a Deaf and a hearing person with certified sign language translation ability talk to each other and on the analysis of the reason for the code-switching. In the study, a figure 「Frog, Where Are You?」 has been presented to 4 Deaf and they were asked to describe it to a Deaf and a hearing person, and to make a conversation. The procedure was recorded in a video as a study material, transcribed through 'ELAN 4.6.2', and analysis was made on it.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he study.

First of all, the type of code-switching exhibited 3 types: additional Korean word classes, transition to Korean phrase, and transition to finger spelling. In 24% of the cases, Korean word classes are added, in 22% of the cases, Korean phrase transition was occurred, and in 54% of the cases, transition to finger spelling occurred, which was obviously the most frequently viewed. Korean word classes added in the process included Korean verbs of 'to do' and 'to become', and other postpositions and adverbs.

Secondly, the reasons that code-switching occur with a Deaf were classified into 5 categories: understanding of the context, transferring of correct messages, checking, educating, and the hearing person. The design of the study, in which a speaker let a hearer understand the picture story and then talk about it freely in a dialogue, showed that understanding and transferring of correct messages most frequently appeared to be the reason.

**Key Words** : Deaf, Korean Sign Language, Signed Korean, code-switching

논문 접수: 2015. 08. 05 심사 시작: 2015. 08. 12 게재 확정: 2015. 09. 02